MARKET
STRATEGY

2026. 3. 20.

글로벌투자전략팀

권범석 선임연구원
beomseok.kwon@samsung.com

양일우 팀장
iw.yang@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코스닥 승강제 도입, 상장폐지 요건 강화 지속 등이 주요

- ① 신뢰, ② 주주 보호, ③ 혁신, ④ 시장 접근성 총 4개의 정책 방향으로 구성
- 코스닥 승강제 도입, 상장폐지 요건 강화 지속 등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

- **KOSPI 5,000pt 달성 이후 중장기 체질 개선에 집중:** 정부는 3월 18일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은 크게 ① 신뢰, ② 주주 보호, ③ 혁신, ④ 시장 접근성 총 4개의 정책 방향으로 구성. 발행시장/유통시장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본 자료에서는 증시,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 위주로 정리

- **① 신뢰:**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지속 추진할 계획. 특히, '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여 상장폐지를 가속화한다는 내용 포함. 정부의 상장폐지 요건이 현실화될 시 KOSDAQ의 재무 건전성은 증가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될 전망. 정부의 상장폐지 요건인 1)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2) 1,000원 미만의 동전주, 3) 완전 자본잠식, 3)벌점 10점 이상에 3월 현재 부합하는 종목은 306개. 이들이 현재 상장폐지된다고 가정하면 KOSDAQ의 순이익은 12개월 후행 기준 3.6조원에서 6.2조원으로 71.6% 늘어날 것이고, ROE는 1.5%에서 2.8%로 상향 조정

- **② 주주 보호:** 저(低)PBR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저PBR 기업 리스트를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할 것을 발표. 이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연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 현재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일률적 기준인 'PBR 0.8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지속. 이에 따라, 동일 산업 내에 저PBR 기업들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 이렇듯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초점이 상속/증여세에 맞춰져 있는 만큼 최대 주주가 개인인 기업의 주식의 경우는 주가를 제고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

- **③ 혁신:**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에 승강제를 운영할 것을 발표. 코스닥 시장을 가칭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으로 구분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도. 정부는 앞서 BDC 제도 도입,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코스닥 소형주를 지원한 바 있는 만큼,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상대적으로 정책 공백에 있는 코스닥 중대형주 위주의 종목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 따라서, 코스닥 중대형주 내 매출/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기업에 관심

- **④ 시장 접근성:** RIA,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단일종목 ETF, BDC, 국민성장펀드 등 장기 투자형/국민 체감형 신상품이 조속 출시될 예정. 특히,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국내 시장 복귀계좌'로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로 국내 증시 수급 개선 기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3월 현재 1,704억 달러 수준이며 원화 환산 시 약 250조원. 이는 3월 현재 KOSPI 유동 시가총액 2,932조원 대비 8.5% 수준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3월,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발표

정부는 3월 18일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은 크게 **① 신뢰, ② 주주 보호, ③ 혁신, ④ 시장 접근성** 총 4개의 정책 방향으로 구성

① 신뢰: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지속 추진할 계획. 특히, '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여 상장폐지를 가속화한다는 내용 포함. 상장폐지 요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1) 시총 기준을 '26년 7월 기존 150억원→200억원으로 상향, '27년 1월 200억원→300억원으로 상향, 2)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상장폐지, 3) 완전 자본잠식 요건을 기존의 연말 기준에서 반기 기준 추가, 4) 공시 위반 벌점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

한국거래소는 2월 제도 개정 발표 당시 최대 220여 개사가 상장폐지될 것으로 추산. 이는 액면 병합을 통해 동전주에서 탈출하는 기업의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것. 정부의 KOSDAQ 정책 모토 중 하나는 '다산소사(多産少死)'에서 '다산다사(多産多死)'로의 구조 변화. 즉, 미래가 유망한 성장주는 많이 상장하고, 부실한 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구조를 지향

정부의 상장폐지 요건이 현실화될 시 KOSDAQ의 재무 건전성은 증가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될 전망. 정부의 상장폐지 요건인 1)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2) 1,000원 미만의 동전주, 3) 완전 자본잠식, 3) 벌점 10점 이상에 3월 현재 부합하는 종목은 306개. 이들이 현재 상장폐지된다고 가정하면 KOSDAQ의 순이익은 12개월 후행 기준 3.6조원에서 6.2조원으로 71.6% 늘어날 것이고, ROE는 1.5%에서 2.8%로 상향 조정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 적용 시 KOSDAQ 재무 지표 변화

	순이익 (조원)	증감률 (%)	ROE (%)	증감률 (%p)	P/E (배)	차	P/B (배)	차
KOSDAQ	3.6		1.53		173.0		2.65	
상폐 요건 적용 시 추정치	6.2	71.6	2.84	1.31	99.0	-74.0	2.81	0.16

참고: 12개월 후행 기준, 2025년 3분기 확정 실적 기준, 3월 19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② 주주 보호: 1) 정부는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시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 일반 주주 동의, 국내 상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만 중복 상장을 허용할 것으로 발표.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자회사 중복 상장 추진 시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 주주 관점에서 영향 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중복 상장 추진을 제한한다는 방침

2) 저(低)PBR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저PBR 기업 리스트를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할 것을 발표. 이는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TSE)에서 발표한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한 개선안 요구' 방안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며 'naming & shaming' 효과를 의도. 금융위가 제안한 저PBR 기준 예시는 '매반기(4월/10월)를 주기로 PBR이 동일 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인 기업'.

이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연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 현재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일률적 기준인 'PBR 0.8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지속. 반대 의견은 예를 들어, 건설, 철강, 화학, 금융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ROE가 낮아 PBR이 낮은 산업들에 대해서 타 산업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거래량, 유동 주식 비율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중. 또한, 같은 산업 내에 저PBR 기업들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이렇듯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초점이 상속/증여세에 맞춰져 있는 만큼 최대 주주가 개인인 기업의 주식의 경우는 주가를 제고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

KOSPI 기업 중 최대 주주가 개인인 低PBR 기업 후보군 (1)

코드	기업명	산업	4Q24 P/B (12개월 후행, 배)	2Q25 P/B (12개월 후행, 배)	최대 주주 지분율 (%)
A006980	우성	코스피 음식료·담배	0.19	0.21	38.4
A033920	무학	코스피 음식료·담배	0.29	0.34	61.4
A001070	대한방직	코스피 섬유·의류	0.14	0.17	32.0
A003200	일신방직	코스피 섬유·의류	0.18	0.26	52.2
A005820	원림	코스피 섬유·의류	0.21	0.27	60.5
A002820	SUN&L	코스피 종이·목재	0.16	0.16	46.9
A009770	삼정펄프	코스피 종이·목재	0.25	0.27	74.1
A000860	강남제비스코	코스피 화학	0.27	0.26	50.6
A001390	KG케미칼	코스피 화학	0.27	0.32	52.4
A002380	KCC	코스피 화학	0.33	0.32	35.6
A003240	태광산업	코스피 화학	0.13	0.21	54.5
A003830	대한화섬	코스피 화학	0.16	0.20	61.7
A004840	DRB동일	코스피 화학	0.20	0.26	69.8
A004910	조광페인트	코스피 화학	0.32	0.31	37.8
A005720	넥센	코스피 화학	0.19	0.25	59.8
A006650	대한유화	코스피 화학	0.27	0.29	39.1
A092230	KPX홀딩스	코스피 화학	0.21	0.26	48.4
A001630	종근당홀딩스	코스피 제약	0.39	0.41	47.9
A002390	한독	코스피 제약	0.58	0.58	43.4
A003120	일성아이에스	코스피 제약	0.27	0.41	38.2
A009290	광동제약	코스피 제약	0.37	0.40	18.2
A016580	환인제약	코스피 제약	0.48	0.49	23.3
A377740	바이오노트	코스피 제약	0.29	0.30	73.2
A003300	한일홀딩스	코스피 비금속	0.26	0.34	69.7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KOSPI 기업 중 최대 주주가 개인인 低PBR 기업 후보군 (2)

코드	기업명	산업	4Q24 P/B (12개월 후행, 배)	2Q25 P/B (12개월 후행, 배)	최대 주주 지분율 (%)
A000670	영풍	코스피 금속	0.19	0.20	66.5
A001940	KISCO홀딩스	코스피 금속	0.21	0.28	55.8
A002690	동일제강	코스피 금속	0.16	0.20	57.1
A004890	동일산업	코스피 금속	0.20	0.23	59.7
A005010	휴스틸	코스피 금속	0.19	0.26	48.1
A008420	문배철강	코스피 금속	0.23	0.24	36.9
A012160	영흥	코스피 금속	0.15	0.23	25.2
A032560	황금에스티	코스피 금속	0.22	0.27	55.3
A058650	세아홀딩스	코스피 금속	0.17	0.22	80.7
A155660	DSR	코스피 금속	0.26	0.28	62.6
A007340	DN오토모티브	코스피 전기·전자	0.54	0.63	52.2
A008110	대동전자	코스피 전기·전자	0.41	0.43	60.4
A009140	경인전자	코스피 전기·전자	0.34	0.35	50.6
A014910	성문전자	코스피 전기·전자	0.55	0.64	23.9
A019180	티에이치엔	코스피 전기·전자	0.38	0.32	42.8
A029530	신도리코	코스피 전기·전자	0.30	0.42	48.7
A029460	케이씨	코스피 의료·정밀기기	0.24	0.32	42.1
A137310	에스디바이오센서	코스피 의료·정밀기기	0.42	0.41	71.6
A000850	화천기공	코스피 기계·장비	0.17	0.21	48.8
A002900	TYM	코스피 기계·장비	0.46	0.52	32.1
A049800	우진플라임	코스피 기계·장비	0.39	0.38	40.9
A002920	유성기업	코스피 운송장비·부품	0.16	0.18	48.8
A010100	한국무브넥스	코스피 운송장비·부품	0.24	0.33	42.1
A041650	상신브레이크	코스피 운송장비·부품	0.25	0.28	45.3
A143210	핸즈코퍼레이션	코스피 운송장비·부품	0.24	0.21	61.1
A002450	삼익악기	코스피 제조	0.32	0.36	45.1
A002460	HS화성	코스피 건설	0.24	0.27	41.9
A013580	계룡건설	코스피 건설	0.13	0.21	38.7
A000050	경방	코스피 유통	0.21	0.25	57.2
A000760	이화산업	코스피 유통	0.21	0.26	72.8
A008600	윌비스	코스피 유통	0.04	0.03	11.8
A017940	E1	코스피 유통	0.24	0.27	45.4
A128820	대성산업	코스피 유통	0.21	0.27	41.0
A139480	이마트	코스피 유통	0.16	0.22	28.9
A000070	삼양홀딩스	코스피 금융	0.16	0.20	41.8
A000590	CS홀딩스	코스피 금융	0.23	0.30	73.4
A001230	동국홀딩스	코스피 금융	0.14	0.15	63.0
A004150	한솔홀딩스	코스피 금융	0.17	0.23	34.3
A006200	한국전자홀딩스	코스피 금융	0.21	0.22	39.2
A007860	서연	코스피 금융	0.18	0.26	46.6
A009440	KC그린홀딩스	코스피 금융	0.12	0.12	39.8
A027410	BGF	코스피 금융	0.19	0.23	69.7
A363280	티와이홀딩스	코스피 금융	0.11	0.14	33.6
A000180	성창기업지주	코스피 일반서비스	0.16	0.19	38.1
A002030	아세아	코스피 일반서비스	0.36	0.43	45.2
A002620	제일파마홀딩스	코스피 일반서비스	0.39	0.41	73.2
A016710	대성홀딩스	코스피 일반서비스	0.26	0.34	72.7
A100220	비상교육	코스피 오락·문화	0.30	0.41	54.1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3) 재평가 기준 자산 가치 공시를 도입할 계획. 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자산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가(공정 가치)로 재평가하지 않아 기업가치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따라서, 주요 자산 재평가를 통한 장부 가치(원가)-공정 가치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 우선, 주된 저평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활용해 주석공시를 의무화할 것으로 발표. '26년 9월까지 K-IFRS를 개정한다는 계획.

③ 혁신: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에 승강제를 운영할 것을 발표. 코스닥 시장을 가칭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으로 구분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 '프리미엄' 세그먼트는 약 80~170여 개의 시총 상위 대형 성숙 기업이 편입될 예정이며, 1) 시장 평가(시가총액), 영업 실적(매출액/이익), 지배 구조 등 엄격한 기준을 설정. '스탠다드' 세그먼트는 일반 스케일업 기업 대상으로 현행 코스닥 요건을 기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 '관리군'은 상장폐지 우려, 거래 위험기업 등을 격리해 별도 관리할 예정. 추가로,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대표 기업 중심 지수를 개발해 연계 ETF를 도입할 계획

정부는 앞서 BDC 제도 도입,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코스닥 소형주를 지원한 바 있는 만큼,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상대적으로 정책 공백에 있는 코스닥 중대형주 위주의 종목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 따라서, 코스닥 중대형주 내 매출/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기업을 분류

KOSDAQ 프리미엄 세그먼트 종목 후보군: 중대형 지수 내 매출/이익 모멘텀 양호한 기업 (1)

코드	기업명	분류	매출액 증감률 (%)		영업이익 증감률 (%)		당기순이익 증감률 (%)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A039030	이오테크닉스	대형주	1.5	18.7	0.8	158.8	17.2	34.9
A058470	리노공업	대형주	8.8	33.9	8.6	42.5	2.1	34.1
A068760	셀트리온제약	대형주	22.9	12.3	3.2	50.7	3.3	76.4
A083650	비에이치아이	대형주	10.2	91.3	45.3	244.3	162.4	232.9
A095340	ISC	대형주	24.4	26.2	317.1	34.1	304.2	2.6
A101490	에스앤에스텍	대형주	17.1	38.5	17.7	70.9	17.2	91.6
A145020	휴젤	대형주	16.7	14.0	41.1	21.3	46.6	0.6
A195940	HK이노엔	대형주	8.2	18.5	33.8	25.7	30.5	22.9
A213420	덕산네오룩스	대형주	29.7	62.2	59.4	15.8	27.8	17.6
A214150	클래시스	대형주	34.9	38.6	36.6	39.3	31.4	35.3
A214450	파마리서치	대형주	34.1	53.0	36.6	70.0	15.1	91.8
A218410	RFHIC	대형주	3.1	61.6	404.8	1,892.6	11.4	77.6
A257720	실리콘투	대형주	101.7	61.4	187.8	49.3	217.6	39.6
A023760	한국캐피탈	중형주	21.1	18.5	17.9	32.1	22.6	23.9
A031330	에스에이엠티	중형주	34.7	30.0	25.8	69.1	65.0	39.5
A032190	다우데이타	중형주	17.4	48.7	80.5	32.6	95.5	39.2
A033500	동성화인텍	중형주	11.9	24.2	35.1	34.4	32.1	42.0
A034950	한국기업평가	중형주	8.9	5.5	26.5	5.1	18.3	2.7
A036800	나이스정보통신	중형주	9.4	12.3	8.6	38.7	26.6	20.1
A037460	삼지전자	중형주	33.0	27.7	47.6	40.5	83.6	25.8
A042000	카페24	중형주	11.6	4.1	1,978.1	25.9	1,084.6	66.3

참고: 2025년 확정실적 발표 기업 대상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KOSDAQ 프리미엄 세그멘트 종목 후보군: 중대형 지수 내 매출/이익 모멘텀 양호한 기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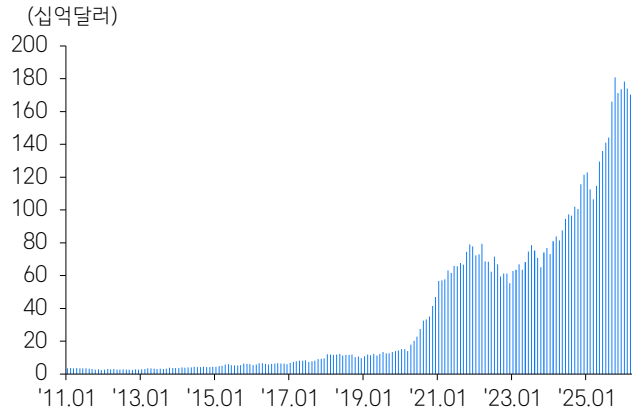
코드	기업명	분류	매출액 증감률 (%)		영업이익 증감률 (%)		당기순이익 증감률 (%)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A049630	재영솔루텍	중형주	29.4	47.7	49.5	7.1	329.5	101.6
A053300	한국정보인증	중형주	32.2	13.5	35.0	42.1	23.4	124.8
A060250	NHN KCP	중형주	13.7	11.7	4.3	24.9	28.5	1.2
A082920	비츠로셀	중형주	19.6	15.3	37.7	33.4	42.2	11.1
A086450	동국제약	중형주	11.1	14.1	20.3	20.1	27.6	18.6
A108380	대양전기공업	중형주	27.2	17.1	320.0	75.1	133.9	28.0
A119850	지엔씨에너지	중형주	36.0	16.0	187.6	55.7	232.0	3.0
A211050	인카금융서비스	중형주	49.5	22.8	85.2	10.4	110.2	15.0
A241710	코스메카코리아	중형주	11.4	22.2	22.8	38.1	58.4	7.1
A251970	펌텍코리아	중형주	18.6	10.2	37.1	16.8	31.6	4.5
A356860	티엘비	중형주	5.1	43.6	10.3	673.2	43.4	426.8
A368770	파이버프로	중형주	69.9	32.0	175.4	40.4	150.8	31.4
A450950	아스테라시스	중형주	64.8	31.6	328.6	55.9	513.9	72.1
A460930	현대힘스	중형주	18.0	11.2	49.0	33.5	63.7	29.2
A472850	폰드그룹	중형주	13,154.5	31.8	6,089.5	39.3	11,315.3	59.5
A482630	삼양엔씨켐	중형주	12.1	13.5	45.9	64.0	91.6	66.2
A484590	삼양컴텍	중형주	68.6	9.2	204.9	47.8	248.1	36.4

참고: 2025년 확정실적 발표 기업 대상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④ 시장 접근성: 정부는 RIA,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단일 종목 ETF, BDC, 국민성장펀드 등 장기 투자형/국민 체감형 신상품을 조속 출시할 것을 발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에 관해서는 당분간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 방안을 추가한다는 방침

특히,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국내 시장 복귀계좌'로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로 국내 증시 수급 개선 기대. 인당 매도 금액은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 ('26년 5월 말 매도 공제율 100%, 7월 말 80%, 12월 말 50%).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3월 현재 1,704억 달러 수준이며 원화 환산 시 약 250조원. 이는 3월 현재 KOSPI 유동 시가총액 2,932조원 대비 8.5% 수준

내국인 해외 주식 보유액 추이



자료: 예탁결제원, 삼성증권

RIA 계좌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안

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RIA를 통해 해외 주식 매도 후,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매도 방법	'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RIA로 입고 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
매도 한도	5,000만원
투자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 가능
혜택	해외 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 금액의 일정 비율 공제 1) '26년 5월 31일까지 매도: 100% 공제 2) '26년 7월 31일까지 매도: 80% 공제 3) '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 50% 공제

자료: 대한민국 국회,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보고서는 철저히 계량적 분석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대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3월 1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19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